# 태풍대비 비상대응체제 가동

## 임실군, 시설물 관리·주민 행동요령 홍보 등 대책 마련

## 주요 우수저류시설·집중호우 피해시설 긴급 현장 점검

임실군이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라 태풍 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재난상황관리 및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분야의 반을 편성해 주요 시설물 관리와 민생 안정, 주민 행동요령 홍보 및 응급복구 장비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와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으로 26일~27일 내 임실군 전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심 군수는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부서장과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선제적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점검한 시설은 ▲관내 주요 우수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 등 수방대책 시설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집중호우 피해 시설 등 57개소이다.

우수저류시설 및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본 심 군수는 "공공과 민간의 현장을 불문하고 비탈면 공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특별히 준수해야 한다"며 "지난 달부터 이달 초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다시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및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하여 일시 철거 또는 결박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상황에 대비해 역학조사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반 운영교육'을 지난 24일 보건의료원 상황실에서 실시했다.

# 임실군,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선제적 대응

## 역학조사반 운영교육 실시

임실군은 최근 8. 15 광복절 집회와 수도권 교회 방문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상황에 대비해 역학조사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반 운영교육'을 지난 24일 보건의료원 상황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반 임무 교육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를 초청하여 임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확진 환자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 발생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반 임무 ▲역학조사서 작성방법 ▲확진환자 발생 최초 상황회의 시뮬레이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현재 군은 각 12명으로 구성된 2개의 역학조사반을 사전에 구성한 바 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감염원 추정과 감염경로 차단 등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방역관리를 촘촘하고 견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보건의료원, 당뇨클리닉실 운영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당뇨클리닉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의료원 3층 당뇨클리닉 상담실을 방문해 무료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건강상담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이상 혈당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드물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당뇨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건강할 때부터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의 혈당수치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혈당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하기, 균형잡힌 식단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금연 및 절주하기 등 한 생활수칙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요즘 같은 폭염에는 당뇨병 환자가 특히 취약하다.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당 급상승 또는 저혈당이 올 수 있어 주기적인 혈당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당뇨클리닉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 남원시, 신규사업 발굴 올인

##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등 101개 사업에 1819억원

이환주 남원시장은 26일 관계자들과 2020년도 신규 시책사업 및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7기 후반기를 이끌어 갈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 보고된 부서별 발굴 보고사업은 101개 사업에 1,819억원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2021년 신규시책사업으로는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취약 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청년 정주환경 조성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재활운동기구 대여사업 등이다.

2022년 국가예산확보 발굴(1차) 사업에는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장품 산업인력 공동훈련센터 지정 ▲남원IC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남원시 어린이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IoT 농기계 교통안전 사고감지 알람 기술 시범사업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있다. 최근 남원시는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따라 시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구에 총력을 다 하고 시민들의 피해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집중 호우피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 발전의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발굴에 임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온라인 '춘향, 남원愛 길을 걷다' 챌린지 운영

## 남원시, 내달 9일까지 신청

남원시가 제90회 춘향제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힘들고 지친 심신을 힐링하도록 하기 위해 생활 속 건강걷기 실천의 일환으로 전 국민 온라인 '춘향, 남원愛 길을 걷다!'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 방식 춘향제 '남원의락'과 함께 걷기 챌린지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체활동 증진을 하고자 마련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운영기간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로 춘향제기간 전 국민 1,000명을 대상,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춘향제 유튜브 채널 '남원의락'과 함께 4일간 3만 6,000걸음 이상 선착순 걷는 챌린지이다.

워크온은 실시간 걸음수를 측정하고 목표걸음 수 달성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 생활 속 걷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걷기 앱으로, 남원시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챌린지를 통해 목표 달성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춘향제전위원회에서 모바일 문화상품권(5천원권)을 인센티브로 지급 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 설치 및 가입하고 남원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 전 국민 온라인 '춘향, 남원愛 길을 걷다!' 챌린지에서 '남원의락 유튜브 채널을 구독, '구독중' 화면을 캡쳐해 '캡쳐완료' 문구와 함께 게시판에 올리고 참여하기를 누른 후 휴대폰을 가지고 춘향제 기간 동안 1일 9,000걸음 이상, 4일간 3만 6,000걸음 이상 걸으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063. 620-7951, 620-7987~8)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남원시 지방세 지원

남원시는 집중호우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남원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최대 2년까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의 유예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으로 대체취득 시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침수해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 미국흰불나방 선제적 방제

임실군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벚나무와 이팝나무 등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미국흰불나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오수면 소재 오수천변 가로수와 의견관광지의 벚나무, 이팝나무 등 미국흰불나방 애벌레 집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방제에 나섰다.

또한 인근 지역인 지사면과 삼계면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로수와 공원 등 생활권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선제적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병해충 전문가와 함께 직접 피해현장을 찾아 "미국흰불나방으로 인한 수목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미국흰불나방은 한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5월과 6월, 7월과 8월 두차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애벌레는 10월 초순까지 잎을 가해하며 자라서 번데기로 월동한다.

/임실=진홍영기자